



최근 산업보건동향

한국산업위생협회 kohma.kr

한국산업위생협회

발전 기금 모금 요청의 건

1. 기금 요청 목적

- ▷ 산업위생전문가의 권익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및 단합
- ▷ 산업보건종사자 및 회원들을 위한 활동

2. 기부방법

- ▷ 현금 : 계좌번호 국민은행 260201-04-2151153
예금주 한국산업위생협회

- ▷ 현물 :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와 기부자 간의 협의
- ▷ 정기적인 기부를 위해 자동이체(CMS) 가능

3. 기부혜택

- ▷ 법인 : 지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10%
한도 손비 인정

- ▷ 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단, 3천만원 초과시 25% 한도)

4. 기금 지원대상 및 운영방법

▷ 지원대상

- 협회지 발행, 장학금 지급, 학술대회
- 워크숍, 힐링캠프, 체육활동
- 기타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등

▷ 운영방법 :

- 협회 재정과는 별도 비용집행 및 회계처리
- 정기적인 감사 실시
- 운영실적 정례보고

5. 기타사항

- ▷ 발전기금 참여신청서, 자동이체 이용 신청서는
협회 홈페이지/알림소식/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참조
- ▷ 문의사항 :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양정란 간사
(010-2345-3035)

**산업보건안전 발전기금 모금에
동참해주세요!**

(사)한국산업위생협회(발전기금 운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을 통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입니다.

기부 방법

현금
계좌번호
국민은행 260201-04-2151153
(사)한국산업위생협회

CMS 자동이체
정기적인 기부를 위해 자동이체(CMS)

현물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와
기부자 간의 협의 물품

기부 혜택

법인
지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10% 한도 손비 인정

개인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단, 3천만원 초과시 25% 한도)

※ 국제형 기부금증수증 발행

기금 지원대상 및 운영 방법

지원대상
협회지 발행, 장학금 지급, 학술대회,
워크숍, 힐링캠프, 체육활동
기타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등

운영방법
협회 재정과는 별도 비용집행 및
회계처리, 정기적인 감사 실시,
운영실적 정례보고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연혁

2010년 : 협회지 '한국산업위생' 제1호 출판
2010년 : 협회지 '한국산업위생' 제1호 출판
2011년 : 협회지 '한국산업위생' 제2호 출판
2012년 : 협회지 '한국산업위생' 제3호 출판
2013년 : 협회지 '한국산업위생' 제4호 출판
2014년 : 협회지 '한국산업위생' 제5호 출판
2015년 : 협회지 '한국산업위생' 제6호 출판
2016년 : 협회지 '한국산업위생' 제7호 출판
2017년 : 협회지 '한국산업위생' 제8호 출판
2018년 : 협회지 '한국산업위생' 제9호 출판
2019년 : 협회지 '한국산업위생' 제10호 출판
2020년 : 협회지 '한국산업위생' 제11호 출판
2021년 : 협회지 '한국산업위생' 제12호 출판
2022년 : 협회지 '한국산업위생' 제13호 출판
2023년 : 협회지 '한국산업위생' 제14호 출판
2024년 : 협회지 '한국산업위생' 제15호 출판

한국산업위생협회 협회지(e-book): <https://kohma.kr/wzine/001/>
문의: koha-mo@naver.com

한국산업위생협회

인사발령(특)제5호 (임원선임)

협회지(2025-Vol. 4 겨울호) 발간 안내



사단
법인
한국 산업 위생 협회
KOREA OCCUPATIONAL HYGIENE ASSOCIATION

수 신 : 임직원

정 유 :

제 목 : 인사발령(특)제5호 임원선임

협회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인사발령을 실시합니다.

1. 관련근거

1) KOHA규정 및 지침 7.인사관리규정 제4조(직급 및 호봉) 및 제5조(인사발령)

- 아래 -

가. 신규 임원선임

사번	성명	임사인자	소속	직급	시행일
A-013	신풍원	2026.01.01	기획본부	기획본부장	2026.0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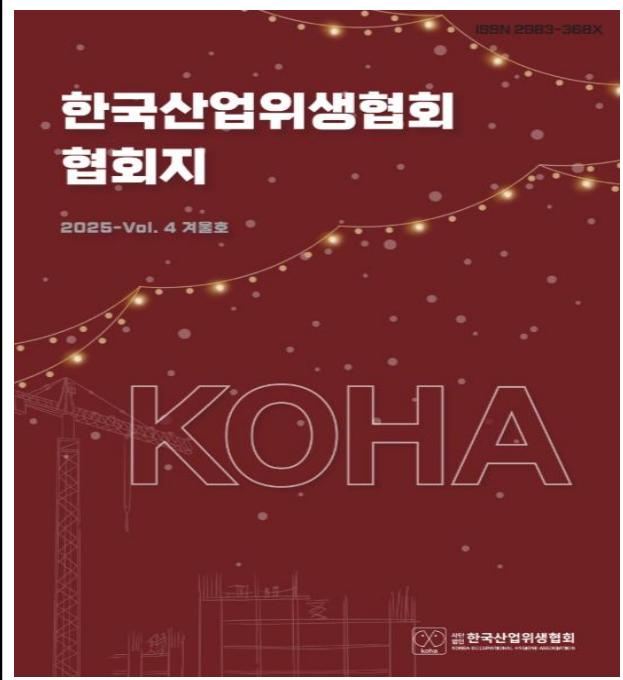
사단법인 한국산업위생협회장



담당 윤언경
문서번호 산위협 2025-235
우 14726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24 송산빌딩 6층
전 화 02-782-3380 FAX 02-836-3380
사업자등록번호 : 117-82-04071, 법인허가(고용노동부):노회-제396호보건진단기관지정:제2017-110002호, 안전보
건평기기관지정:제2020-3호

회장 기윤호
작성일 2025.12.23
/ www.kohma.kr

kohma3380@hanmail.net



한국산업위생협회의 협회지(2025-vol. 4 겨울호) ISSN2983-368X
가 발간되어 안내드립니다.

한국산업위생협회 홈페이지의 알람소식-KOHA협회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kohma23.iwinv.net/202504/>

한국산업위생협회 인사관리규정 [KOHA규정 및 지침 인사
관리규정 제4조(직급 및 호봉) 및 제5조(인사발령)]에 의거
하여 인사발령을 실시합니다.

정부·국회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11.(목) 16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업무보고를 했다(농림축산식품부 합동). 이날 보고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고용노동부장·차관, 본부장 및 실·국·과장, 산하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노동·생명 존중 기조로 과감히 전환했다면서, 앞으로는 현장 밀착·구체적 실행·성과 체감을 통해 주권자의 명령을 성과로 실현하겠다고 보고했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는 노동·생명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했다.

안전한 일터 특공대가 2.2만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현장 점검을 실시(안전일터 프로젝트)하고, 중대재해의 근본적·구조적 해결을 위한 노동안전종합대책을 수립('25.9.15.)-시행하는 등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지키기에 총력을 다했다.

임금체불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임금구분 지급제 도입 추진 등 "임금체불 극절대책('25.9.2.)"을 수립·시행했다.

노사정 간의 신뢰를 다시 세우고, 노조법 개정을 통해 원·하청 간 대화·소통을 촉진하는 단초를 마련했으며, 62년 만에 노동절을 복원('25.11.11., 법 개정)하는 등 노동 존중의 기반을 조성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25년 3분기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275명으로 전년 대비 26명이 증가했고,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수는 감소함에도 경제규모 확대, 임금총액 증가 등으로 '25년 9월 임금체불액(1조 6,413억원)은 전년보다 7.8% 증가했다. 20·30대 70만 쉬었음 청년 등의 취업애로도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본격적인 회복과 성장을 위해 "노동과 함께 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노동시장 격차 해소",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산업현장 위험격차 해소]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소규모의 사업장을 산업안전의 주요 정책 대상으로 전환한다.

먼저, 지붕축사(전국한우협회 등)-별목(원목생산업협회 등)-한파(한국생활폐기물중앙회 등)-질식(상·하수도협회 등) 등 분야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작은 사업장까지 정책이 닿는 '길목(접점)'을 확보한다. 일터지킴이(1천명) 등과 함께 정책길목을 활용해 업종별 핵심 위험요인과 안전수칙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고, 작은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위험한 기계교체, 안전장비 구입 등)을 위한 약 5,400억원의 재정지원을 신속히 연계한다('26년 5,371억).

< 작은 사업장 재해예방 지원강화 방안(예: 태양광 설치공사) >

태양광패널 설치 계획 공유	태양광패널 설치 작업 시
지방정부(신고 등) 정보 활용	기술·재정 자원: 일터 지킴이 등 + 검침·감독: 지방고용노동관서

중견·대형사업장은 자율적 예방을 촉진하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중대재해 발생 시 더욱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사망사고 다수·반복기업에 대한 영업정지, 과징금 도입 등 실효적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참여·권리를 강화한다.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하여 사업장의 재해현황, 재발방지대책, 안전보건투자 현황 등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강화한다.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원·하청 노사가 함께 안전규범을 수립하고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등 노동자의 참여할 권리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의 작업증지요구권 신설, 작업증지 행사요건 완화 등 작업증지권을 확대하여 위험한 작업상황에서 노동자 스스로 피할 권리를 보장한다.

[노동시간 격차 해소] OECD 평균 수준(1,700시간대)을 목표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본격 추진한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할 예정이다.

공짜노동 근절을 위하여 포괄임금제 금지, 노동시간 측정·기록의무, 퇴근 후 불필요한 업무 연락 없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26.상~). 교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대상 분기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의 야간노동자에 대한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및 노사·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노동시간 관리방안도 마련한다('26.9월).

주 4.5일제 도입지원 시범 사업(324억원, '26년)을 통해 모범적인 주4.5일제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인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제정법」의 입법도 추진('26.3월 ~)한다.

정부·국회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보도자료

[새로운 산업재해 위험요인 대응]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기후변화 등 대응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조치도 마련한다.

화물차주, 방과후 강사 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확대하고, 산재처리기간 단축(24년 228일 → '26년 160일)과 함께 산재 신청부터 직업 복귀까지 종합 지원한다. 중대재해 피해 동료, 재난대응 노동자 등의 트라우마 치료 지원, 고객응대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이행 시 제재도입 등의 정신건강 장해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한파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대 조정 등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 강화와 함께 온열질환 예방설비 지원 확대 ('26년 280억, +80억), 지방정부·민간과 보건조치 정보제공 및 지도(14만개소) 등 한파·폭염으로부터의 보호도 강화한다.

특히, 노사정이 산업안전 예방의 주체로서 '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구성하여 한파·폭염, 새로운 산업재해 위험요인에 대해 민관합동 산업안전 연구개발(R&D), 민관 합동 안전문화 확산 등의 공동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두에게 든든한 고용안전망 확충] 대전환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 지역이 소외받지 않도록 두터운 안전망을 구축한다.

먼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현재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에서 소득으로 개편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사람들을 신속 발굴 및 직권 가입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N잡,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비임금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 일자리정책은 지방 중심으로 바뀐다.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가칭「지역 고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정부 중심 거버넌스 역할 강화, 자체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 수립·지원이 가능해진다. 탄소중립 전환과정에서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근로자·기업·지역 사회가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와 공동으로 '정의로운전환 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기업 예산을 복원해 발굴·육성·성장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중점과제에 대해서 중앙·지방·현장 및 이슈별로 중증적 사회적 대화를 촘촘히 구축할 예정이다. 중앙 단위의 경사노위 주관 사회적 대화, 지역 단위의 지방 정부, 지역노사민정 및 지역·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포함한 유관기관 간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여 노사정이 함께 현장 기반의 실행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어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주권자의 명령인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로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할 계획이다.

먼저, AI를 기반으로 업무를 효율화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AI가 사업장의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작업현장 사진 등을 토대로 노동법·산업안전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구인광고 중 채용질서 및 법 위반 여부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고용노동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학생·공무원 안전교육과정 개설·운영 및 이수 의무화, 대국민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 생명·안전 감수성이 정부 모든 정책의 기초가 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의 미션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가진다'는 헌법 제32조 정신을 일터 민주주의로 실현해 K-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가 모든 일하는 사람들,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가장 믿음직한 친구이자,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노동자들이 억울하고 힘들 때 '우리 노동부'라고 부르며 가장 먼저 달려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대안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2026년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주요 정책은?

청년

- 연령 확대
연령을 29 → 34세로 변경해서 두텁게 보호합니다.

일하는 부모

- 10시 출근제
- 단기 육아휴직
일 육아 병행을 지원합니다.

임금체불

- 도산 대지급금 3개월 → 6개월
- 처벌강화 5년 : 5천만원
체불 노동자를 보호합니다.

대화와 상생

- 원·하청 노동자
대화 촉진
파트너십을 구축합니다.

노동절

- 노동절 복원
62년만에 복원합니다.

권리보호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
144만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산업안전

-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안전보건 공시제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합니다.

산재보상

- 치리기간 단축 228일 → 160일
직장으로의 빠른 복귀를 지원합니다.

신기술 활용으로 AI 정부를 선도하겠습니다.

생명안전 감수성이 모든 정책의 기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신하기관 비정규직 등 처우를 개선하여 모범적 사용자로 거듭나겠습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725

정부·국회

(참고) 고용노동부 장관, 광주 도서관 공사현장 봉고사고 관련 사고수습 철저 긴급지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5. 12. 11.(목) 13:58분경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도서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봉고사고(4명 매몰 추정)와 관련하여,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현장에 급파하고 신속한 사고수습을 지시했다.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노동부 본부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및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즉시 구성

-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장인 안전보건감독국장을 현장에 급파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수습 지원

② 사고 즉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해당 현장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조치

한편, 김영훈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마친 직후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고 수습을 지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현재는 매몰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신속히 구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상황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수습 및 2차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726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12월 11일 진행한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12월 15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과 국민께 보고드린 2026년 업무보고 내용이 현장에서 자체 없이 추진되도록 현장 실행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두발언(붙임 2 참고)을 통해 “2026년은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일하러 나가서 죽지 않고, 일하러 나가서 돈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산재, 임금 체불, 2030 쉼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관서의 비상한 각오를 당부했다.

아울러, 12.15.(월)부터 사업주 및 노동자가 3대 기초 안전수칙 *을 준수하도록 계도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는 안전모 및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중 떨어져 사망하고,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게차 운전 중 전도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빈발한 데에 따른 조치이다. * ① 안전모 지급 및 착용, ② 안전대 지급 및 착용, ③ 자게차 안전벨트 착용

이어, 본부는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추진계획(붙임 3 참고)'을 공유하고, 지방관서의 현장실행체계를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분기별 기관장 회의 및 수시 점검회의를 통해 과제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전략목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증결과제	노동시장 격차 해소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청년세대 일할 기회 격차 해소 ❷ 노동시간 격차 해소 ❸ 산업현장 위험격차 해소 ❹ 임금·복지 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인구구조 변화 속 노동시장 참여 확대 ❷ AI 확산에 따른 위기를 기회로 전환 ❸ 새로운 산업재해 위험에 대응 ❹ 모두에게 든든한 고용안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❺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권 보장 ❻ 일한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공정임금 ❼ 스스로 지키는 참여형 일터 안전 ❽ 외국인노동자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밀착 현장 이해관계자의 소통·참여를 통한 합리적 대안 마련 · (예) 을산원건소봉고사고 관련 범간소 티워 4호기 해체를 유기족과 함께 결정 등 · 맞춤 실행 문제의 원인을 대상별로 축출해 진단하여 대책 마련 · (예) 상습체불 사업주: 낮은 저벌수준으로 임금체불을 통한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인식→ 제재 강화를 통해 임금체불의 비용을 높여 경각심 제고 · 성과 계기 데이터 기반의 체감도 높은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국민이 만족하는 사례를 발굴·전파하여 만족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현장 단위 사회적 대화 활성화 · 관계부처+지방정부+민간이 협업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733

정부·국회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심층 분석, 「2025 중대 재해 사고백서」 발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16일(화)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5 실천만이 위험을 막는다」를 발간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주요 중대재해에 대해 사고의 기술적 원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직 문화, 작업 관행 등을 심층 분석한 사례 모음집이다. 산업현장에서 임직원 교육자료로, 대학 안전 관련 학과에서 학습 교재로 활용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에서는 ▲최근 발생한 화재 · 폭발, 중독사고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3차례 이상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사례를 통해 사고 재발의 근본 원인도 짚어본다. 이외에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이동식비계, 고소작업대, 벌목 작업 시 사고 사례 및 안전 수칙도 함께 살펴본다.

특히, 올해는 그간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판례(71건) 현황과 이에 대한 시사점이 부록으로 수록된다. 판결 내용, 주요 위반 조항 등 주요 현황과 함께 판례가 제시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의 기준, 경영책임자의 역할 등이 실려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모두가 산업안전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산업재해는 예방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사고백서 발간을 통해 노사 모두가 안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전자책 플랫폼(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에서 무료로 볼 수 있으며, 책자는 12월 중 일반서점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739

고용노동부,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집중점검주간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5.12.22.(월)부터 12.31.(수)까지 사업주 및 노동자의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①안전모 지급 및 착용, ②안전대 지급 및 착용, ③지게차 안전띠 착용

고용노동부 장관은 12.15.(월)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사업주 및 노동자가 3대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에 나설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집중점검주간에는 지방노동관서장 및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건설현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본부, 지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영상 및 라디오 송출, 카드뉴스, 누리소통망(SNS), 현수막 및 배너 게시, 현장 안내문 배포 등 전방위적인 홍보를 통해 노사의 기초 안전수칙 준수는 안전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집중점검주간 이후에도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모든 점검·감독 시 필수 점검사항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여, 사업주와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를 함께 만들어 나감으로써,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지급 및 착용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작지만 가장 확실한 실천"이라며, "사업주 및 노동자가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닌 예방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안전을 쟁기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771

안전보건공단

주간 사망사고 속보

- [12/11, 광주 서구] 지붕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이후 하부 구조물이 무너짐
- [12/12, 충남 공주시] 케이블 정리 중 사다리에서 떨어짐
- [12/12, 경기 부천시] 청소 작업 중 후진하는 화물차량과 부딪힘
- [12/15, 경북 영주시] 가동 중인 롤러기 청소 작업 중 구동축에 작업복이 말려들어감
- [12/17, 부산 동구] 철골 위에서 데크플레이트 자재 운반 중 개구부로 떨어짐
- [12/17, 서울 강남구] 지하에서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상부에서 떨어지는 철물자재에 맞음

<제조업 등> '26년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공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상생방안을 실천하면, 정부가 기술·재정적으로 지원하는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상생협력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내용

○ 사업 대상

-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 중소기업 및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 별도 시행)

○ 지원 내용: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지원***비용 지원

* 협력업체 :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 안전보건공단에서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지원 : 안전보건 컨설팅, 교육, 캠페인, 보호구 등 지원

※ 매칭분담비율 : ▲사외·지역중소기업 정부70:모기업 30 ▲사내 협력업체 정부50 : 모기업50

○ 참여 방법: 모기업·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 매칭지원 과제 등을 선택하여 참여

2. 사업신청

○ 신청 기간: 2025. 12. 22.(월) ~ 2026. 1. 16.(금)

○ 신청 방법: 공단 본부·광역본부 홈페이지에 공고된 세부사항을 참고하여 접수

○ 신청 자격: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을 희망하는 100인 이상 기업(건설업 별도 시행)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notification/notice/construction?bbsId=B2025021400001&postNo=202512220852096XOM0Y>

오이레터

교대근무자의 심혈관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야간교대근무는 심혈관계 질환 사망을 20% 증가시킨다

교대근무자는 비교대근무자에 비해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이 약 20% 높습니다. 이 효과는 야간교대근무에 5년 이상 종사했을 때 나타나며, 첫 5년 이후 추가 5년마다 약 7.1%씩 위험이 증가합니다. 물론 개인의 특성, 기저질환, 연령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교대근무가 단순히 건강을 악화시키는 수준을 넘어 실제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점입니다.

야간교대근무가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기전

야간교대근무가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가장 직관적인 경로는 야간교대근무가 나쁜 생활습관—신체활동 부족, 흡연, 음주,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to 매개로 심혈관계 사망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 효과 외에도 야간교대근무로 인한 생체리듬 교란이 심혈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글은 바로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생체리듬 교란이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가?

최근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 참가자 약 88,905명(평균 연령 62.4 ± 7.8 세, 여성 57%)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1주일 동안 손목 착용 광센서를 통해 조명 노출 데이터를 수집했고, 이를 바탕으로 일주기 리듬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평균 8.0년(표준편차 ± 1.0 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3,75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야간근무자로 추정되는 집단(야간 빛 노출 수준이 전체 연구 대상자의 90~100백분위수에 해당)은 대조집단(0~50백분위수)에 비해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이는 성별, 나이, 인종, 사회경제적 요인, 신체활동, 흡연, 알코올 섭취, 사회활동, 도시 거주 등을 모두 보정한 후에도 사망 위험이 33% 높았습니다. (보정 후 위험비(HR) 1.33, 95% CI 1.06~1.68)

심혈관 질환의 기저 상태인 죽상동맥경화증

야간교대근무로 인해 심혈관 질환 발생이 증가한다는 것은 병리학적으로 야간교대근무가 죽상동맥경화증의 진행을 촉진하거나 취약한 동맥경화반 파열을 촉발한다는 의미입니다. 죽상동맥경화증은 20~30대 초기 성인기에 이미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0~50대 중년기가 되면 진행된 동맥경화반 단계로 발전합니다.

-이하 생략-

잠깨려고 마시는 커피, 많이 마셔도 괜찮을까요?

건설 현장의 새벽을 여는 캔커피, 제조업 공장의 휴식 시간을 채우는 믹스 커피, 그리고 사무실의 오후를 버티게 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는 기호식품을 넘어 노동자의 혈관을 흐르는 '검은 연료'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해본 적 없으신가요 – “직항 여객기가 없을 정도로 먼 나라에서 온 과일의 씨앗을 구워서 우려낸 검은 물을 마셔도 내 몸은 괜찮은 걸까?” 오늘 오이레터에서는 이 질문에 심혈관계에 집중해 체계적 문헌고찰 및 매타분석 연구에 기초해서 대답해 보겠습니다.

커피와 심혈관 건강

1980~90년대만 해도 커피는 심혈관질환의 유해 인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연구들은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의 '흡연', '운동 부족' 같은 교란 변수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014년에 발표된 매타 분석 연구[i]에 따르면 하루 평균 3잔을 마시는 군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군에 비해 뇌심혈관 질환 발병의 상대위험도(Relative Risk)가 0.85 (95% 신뢰 구간 0.80-0.90)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상대위험도 이야기가 몇 차례 나오는데, 상대위험도 0.85는 위험을 약 15%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혈압과 커피 섭취 간의 관계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일 반적으로 커피 섭취 직후에는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내성이 생기는 현상이 보고됩니다. 2023년 이 주제에 대해 이루어진 매타 분석 연구[ii]에서는 코호트 연구군은 상대위험도 0.93(0.88-0.97), 단면연구군은 상대위험도 0.79(0.72-0.87)로 커피 섭취가 고혈압 발병의 위험을 감소시켰습니다. 고혈압 환자에서도 하루 1~3잔의 섭취는 혈압 조절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2형 당뇨병과의 관계는 더 명확하며 용량-반응 관계가 관찰됩니다. 해당 주제에 대해 2018년의 체계적 고찰연구 [iv]에 따르면 합산 상대위험도는 0.71(0.67-0.76)이었고 아래 그림1에서 보이듯이 한 잔당 약 6%의 상대위험도 감소를 보였습니다. 디카페인 커피에서도 비슷한 관계가 관찰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160>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159>